

공동주택 공급↑… 분양가 하락하나

제주시 연동·노형 등 4000세대 이상 공사 진행 중
5월 기준 미분양 주택 552세대로 지난해보다 늘어
“금리인상 등 매수심리 위축 하반기부터 하락 전망”

제주시 공동주택 분양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주시는 19일 “지역 공동주택 공급 증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주택 매매 심리지수 하락으로 주택 분양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4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미분양 감소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분양 경기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공동주택 신규 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2020년 1월 이후 공공을 포

함 공동주택 허가 물량은 총 6344
세대로 착공 5237세대, 준공 3794
세대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크라
운호텔 부지 183세대 등 주택선호
지역인 연동·노형을 중심으로 주상
복합 아파트 7개소, 491세대가 사
업 승인을 받았고 추가로 7개소,
754세대에 대한 건축허가가 신청되
는 등 신규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신제주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높은 부지 매입비, 기존 건축물 철거, 원자재 가격, 인건비, 금리인상 등 건설 원가 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공급량 증가에도 고분양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동주택 신규 공급 확

대, 미분양 주택 증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 위축 등이 겹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제주지역 주택 경기도 내 립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미분양 우려가 있는 사업장부터 분양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5월 현재 제주지역 미분양 현황(사업승인 기준)을 보면 읍면 260세대, 동지역 292세대 등 총 552세대로 파악됐다. 앞서 미분양 사례는 2020년 477세대, 2021년 313세대였다.

시승호 공동주택팀장은 “미분양 현황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월별 정보제공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라며 “수요에 맞춘 공급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자금력이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조사
제주시, 4곳 행정처분 시행

제주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종합·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 16곳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다.

위반사업자 4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영업정지 중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국세청 사업자 폐업 등이다.

이 중에서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3곳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 사업자를 폐업한 1곳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이뤄졌다.

또한 영업정지 중 하도급 위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곳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진선희기자

서귀포시 올 상반기 사망신고 폭증

6월말 기준 803명… 지난해 동기 대비 35% 늘어

서귀포시의 올 상반기(1~6월) 사망 신고건수가 4.3사건 배·보상 등의 사유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시청과 읍면사무소(5개소)에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건수는 28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66건에 견줘 80건(2.6%) 감소했고, 주된 감소 유형은 개명신고로 전년 동기(299건) 대비 99건(33.1%) 줄었다. 반면 가장 많이 증가한 신고 유형은 사망신고이며 지난해 동기(595건)보다 208건(34.9%)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고내역을 보면 사망신고가 803건(2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혼인 478건(16.6%), 출생 419건(14.5%), 이혼 201건(7%), 개명 200건(6.9%), 기타 785건(27.2%) 등의 순이다.

시 관계자는 사망신고건수의 급증에 대해 “고령층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신고 대상은 30명선이었으나 올해는 60~70명선으로 배 가량 늘었다"며 "특히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4·3 배·보상에 따른 고령층의 사망신고 접수가 급증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50대 이상의 사망신고건수도 크게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67명(전년 대비 증가율(이하 생략), 48.9%), 60대 90명(50.0%), 70대 130명(38.3%), 80대 247명(12.8%), 90대 167명(45.2%), 100세 이상 64명(128.6%) 등이다. 4·3 배·보상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는 경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 상반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한 114건(개명 81, 등록기준지변경 29, 가족관계등록부정정 1, 기타 3)으로 전년 동기 117건(개명 11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2, 기타 3)에 비해 3건(2.6%) 감소했다. 백용탁기자

백금탐기자

2022 제주愛 빠지다 ⑥ 세화마을협동조합 마을PD 양군모씨

“재미난 마을 콘텐츠 많이 만들게요”

고된 군생활 시절 찾았던 제주는 양군모(34)씨에게 작은 위로의 공간이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학군 50기로 입관한 그는 강원도 고성 최전방 부대와 성주 사드 기지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했는데, 휴가가 주어질 때마다 늘 제주로 향했다. 그래서일까. 7년간의 군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가서 살까’ 고민하던 그는 자연스레 제주가 눈에 들어왔다. “제주 여행을 다녀온 게 서른 번 넘더라구요. 제주에서 살 자신이 있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되니까 행복을 위해 아내에게 제주로 가지고 설득했죠.”

제주살이를 시작한 양 씨는 우연히 제주관광공사에서 ‘제주 마을여행 활동가, 삼촌 프로듀서(PD)’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됐다. 제주도 구좌읍 주민들과 마을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일이었다. 평소 기획 관련 일을 하고 싶었던 그는 바로 도전했다. 하지만 면접 날, 경기도 용인이 고향인 그는 면접관들이 말하는 제주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당황했다. “제주 관련 일을 해야 하는데 제주어를 못 알아들었으니 ‘망했구나’ 싶어 마음을 비웠어요. 이대로 가기 아쉬워 제주웰컴센터의 ‘웰컴(Welcome)’으로 이행을 짓고 나왔어요. ‘웰’은 ‘더할 나위 없는, 잘’, ‘컴’은 ‘커뮤니케이션’으로 더할 나위 없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마을과 소통해 마을관광 상품을 잘 만들어보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그렇게 세화마을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구좌읍 3개 권역 중 공석이던
세화리 삼춘PD로 2018년 7월부
터 활동하게 된 그는 세화마을에
서 지내면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



양군모씨는 마을PD로서 마을의 재미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한편 세화마을 주민들이 그의 가족에게 보내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마을에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7년간의 군생활 정리하고 2018년 제주행
삼촌PD에 마을PD까지 세화마을과 인연
“저희 가족을 품어준 마을에 베풀며 살것”

대 마을여행 콘텐츠를 만들고 '구좌주민여행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왔다. 1년6개월간의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그는 세화마을과 인연을 계속 이어갔다. 2020년 1월부터는 주민들이 설립한 세화마을협동조합에서 마을 PD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는 조합에서 일하면서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 유희공간을 리모델링 해 공유오피스, 숙소, 카페 등으로 꾸민 ‘질그랑이 거점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데다 관광객과 워크ेशन 참여자들이 마을을 둘러볼 수 있게 투어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본업 뿐만 아니라 마을 반장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농장에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러 가기도 하고, 당근 착즙 짜끼기를 몰래 버린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해녀삼춘을 손 댈게 성계 곁집도 갔다 버리기도 했어요. 주민들이

찾아주시는 게 재밌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가 마을 일에 열심히 나서는 건 주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 때문이다. 처음엔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주민들과 낯설은 제주어라는 언어장벽 때문에 '이 마을에서 계속 있어야 하나' 고민했던 그였다. 하지만 쌀쌀 맞던 주민들이 보여준 숨겨진 인심에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됐다. “작년엔 생채가 태어났을 때 아내가 산후조리도 못하고 아이 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민들이 아네 먹으라고 소고기, 전복, 성게 등 미역국을 끓여다가 놓고 가셨는데 그 수만도 11개나 됐어요. 3살 된 첫째도 데리고 가서 재워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었고 그 감사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을 품어준 마을에 베풀며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박소정기자

박소정기자



그랜드보청기

'청각 솔루션센터'



그랜드보청기 여름 무더위탈출 대 이벤트

※보청기와 관련된 궁금증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하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와 사거리 북동쪽
시창방면 1층 삼점거리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타미널

그랜드보청기

실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청음이 왕왕 옳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피출소
한라제육관	● 국제보청기 (국제기계층)
	● 실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하례조생

제라온

미니향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량률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감류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온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리조생
공천, 종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전화 02-9182-2329)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요,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예약
주문·생산

탐팻1호, 선경,
설봉미, 미니문,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제)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1번길1(수산리735)